

중 앙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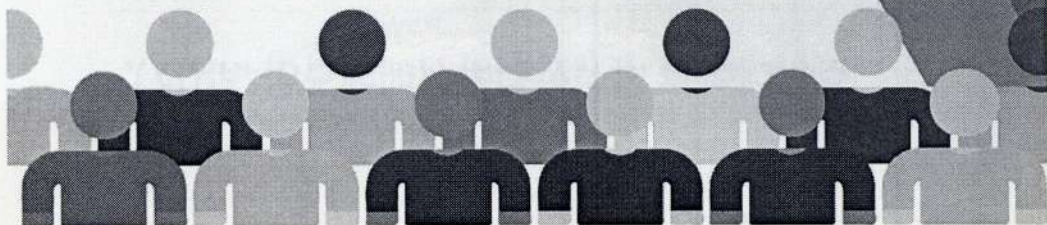
페미니스트

총 결 기

2019.05.30 19:00

중앙대 내 반페미니즘 분위기 비판 성평등위원회 FOC 사업지지 연대

중앙대학교 반성폭력반성매매 모임 반



중앙대 페미니스트, 총궐기로 모이자!

중앙대학교 반페미니즘 움직임으로 인해 학내 성평등 사업이 공격받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2014년에 사라진 서울캠퍼스의 총여성학생회를 대신해 성평등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평위에서 제안한 학내 성평등 및 반성폭력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조직 위원회(Feminism Organization in Chung-Ang University, 이하 FO-C)사업이 'Feminism'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현재 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여성권익 향상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공격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성갈등을 조장하는 성평등위원회를 폐지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공격에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알파는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FOC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FOC 사업이 실제로 여성주의 확산만을 강조하여 성별 간의 갈등, 신념의 대립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FOC와 성평위에 관한 온라인 혐오세력과 총학생회의 입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여성주의 확산은 결코 소수자를 배제하지도, 남성 피해자를 지우지도 않습니다. 여성주의는 남성 피해자와 함께, 절대적 다수이지만 항상 '소수'인 여성 피해자의 곁에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 서울캠퍼스에서만 총 9건의 미투가 있었습니다. 피해사실을 공론화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고려할 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지 추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FOC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알파는 청원이 200명이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FOC의 사업, 더 나아가 성평등위원회의 존재가치를 논하는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우 200명의 온라인 청원으로 FOC 사업의 중단하는 것은 총학생회의 인권 의식 부재 및 여성주의에 대한 무지입니다. 총학생회는 '소수자를 배제'한다면서 성평등위원회의 존립을 논하고 있지만 다수의 동의라는 이유로 인권의 영역을 지우려 하는 것은, 소수자로서의 여성학우를 지우는 것은 성평등위원회가 아닌 총학생회입니다.

이에 맞서 '반' 측은 중앙대학교 내 반페미니즘적인 문화와 총학생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위험이 만연한 대학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성평등위원회의 존속과 함께 성평등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위협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요, 여성주의를 오해하고 성평위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 총학생회의 결정 규탄에 함께해주세요. FOC 사업이 다수의 반대라는 이유로 중단되거나 폐지되지 않게 중앙대학교 페미니즘 총궐기 집회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더 이상 '여성주의'가 숨겨야 하는 단어가 되지 않게 저희와 함께 연대해주세요.

중앙대학교 반성폭력반성매매모임 '반(反)'